

Brookings CNAPS Annual Conference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연례 회의

출장보고서

2011. 11. 2.

임원혁

출장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미국 Brookings 연구소 CNAPS(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연례 회의에 초청되어 ‘아시아의 세기 실현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발표자료 별첨)
 - CNAPS는 1998년 Michael Armacost 브루킹스 소장(일본 주재 미국 대사 역임) 재임시 설립되어 동북아 외교·안보·정치·경제 문제를 다루며, 해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등에서 1명씩 초빙 연구위원을 선발
 - CNAPS 연례 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 2011년 CNAPS 연례 회의는 Asia Society-Brookings-Hong Kong University 공동 주최로 “THE U.S. - ASIA DYNAMIC IN THE 21ST CENTURY: THE CHALLENGES AHEAD”를 주제로 하여 10.18 홍콩에서 개최

2.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17	20:00	서울 출발	KE 607
	22:30	홍콩 도착	JW Marriott Hotel(Island Line, Admiralty Station)로 이동
10/18	08:45-09:25	개회사 기조 연설	장소: JW Marriott Hotel 공동 주최기관 대표 Donald Tsang, Chief Executive, HK SAR
	09:30-11:15	Panel I	Asia's Changing Bedfellows: De-Coupling from the US & Coupling with China?
	11:30-14:00	Luncheon Panel	China's Future Trajectory and Implications
	14:00-15:15	Panel II	The Emerging Intra-Asia Dynamic: Where to From Here?
	15:30-16:45	Panel III	The Risk of Destabilization: Maintaining Stability for Economic Growth
	18:30-20:00	Reception Dinner	Stephen Young, Consul General of the U.S. in Hong Kong and Macau
10/19	08:00-09:30	Informal Breakfast	Strobe Talbott, President, Brookings Institution CNAPS Fellows
	12:25	홍콩 출발	KE 604
	17:00	서울 도착	향후 계획 논의

주요 논의 내용

1. 외교 · 안보

-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대적 국력 변화로 인한 국제 역학관계의 재편 가능성에 대해 1) G2(미-중) 대타협, 2) G20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규범 설정과 견제, 3)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 등의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
 - 1) 예를 들어 미국은 남한, 중국은 북한 식으로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서, 타협을 통해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영향권 조정에 따른 신의 상실 효과가 크고 상대적 국력 변화에 따른 추가 조정이 불가피
 - 2) 미국이 우방국들의 도움을 얻어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자간 규범을 설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지만, 중국 또한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므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이 이뤄짐.
 - 3) 동맹 간의 역할과 비용부담을 조정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동맹 관계 조정 과정에서 동맹 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의 맞대응을 유발하여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
 - 세 가지 대안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조합을 선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미국의 재정적 제약과 군사전략의 변화로 인해 군사력 배치 및 분담금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
 - 군사력이 필요에 따라 재배치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더욱 강조
 -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대등한 동맹관계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의 부상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실질적 대안이 부족하여 결국 미군 해병대와 공군 병력을 사실상 현상유지하는 방안에 합의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미 해병대 2500명이 연중 6개월 정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훈련하는 형태로 순환(rotation)되는 데 동의
 - 한반도 지역 이외의 군사적 상황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 논쟁에서 한국에서의 작전 수행(operating from)과 한국에서의 차출(departing from)을 구분하여 후자만을 용인했으나, 군사력 순환(rotation)은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2. 경제 · 통상

- 1990년대 중반 이후 도하 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무역 ·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움직임과 2)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병렬적으로 진행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규범은 건재하며 국제 교역 및 생산네트워크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다자간의 추가적인 자유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유화는 미국 주도의 움직임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은 중국 주도의 움직임으로 평가되는 경향
 -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유화는 원래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표류하다가 최근 Trans-Pacific Partnership(TPP)로 무게중심을 이동
 - *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의 모색은 ASEAN Plus Three(APT) 주도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
-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를 부각시키는 견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WTO 규범에 기초한 국제생산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미국 · 인도 등 역외 국가들이 포함되는 형태의 지역협력이 결성될 가능성
 - 2005년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태평양 연안 국가도 일부 포함시키는 형태의 East Asian Summit(EAS)가 부상
 - * 2005년 APT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추가한 EAS 첫 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ASEAN Plus Six)되었고, 2011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추가되어 회원국이 18개국으로 증가